



게임 명

Sweet House

장르	인테리어 육성 시뮬레이션
플랫폼	PC Online / Mobile
세계관	이 세계 근현대 문명
카메라	이소메트릭 뷰 (쿼터 뷰)
시점	1 인칭 주인공 시점
대상층(user)	12 세 이상 이용가(중고등학생 이상의 전 연령층)

<게임 특징>

'인테리어 시공 디자인 학과' 3 학년에 재학중인 22 살의 주인공이 어느 날 공간 일그러짐에 휘말려 이세계로 강제 이동되어 이세계에는 찾아볼 수 없는 현대의 독특한 인테리어를 차용한 새로운 느낌의 인테리어 시공일을 하면서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왕궁 인테리어를 최종 목표로 진행되는 내용.

왕궁 인테리어 시공이 성공하면 포상으로 왕궁 내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현대로 돌아갈 수 있는 엔딩이다.

<시나리오>

Scene_1-1. 이세계 이왜진?! (프롤로그)



세희 - 으... 졸려...

'아.... 어제 밀린 과제들 마무리한다고 너무 무리했나...'

주인공 - 흐아아암.... 그래도 오늘은 강의가 하나뿐이라 좀 쉴 수 있겠네.

(나는 토스트에 딸기잼을 발라먹으며 강의시간표를 보다가 갑자기 생각 난 것이 있어 달력을 보았다.)

세희 - 아 맞다...!! 오늘 강의 바뀌었지.... 오늘 강의가.... 윽...고교수님 강의... 아~ 가기 싫어!!

'오늘 강의 바뀐 거 왜 기억을 못한 거야.....!!!'

(나는 봉어 같은 기억력을 원망하며 강의를 들으러 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하...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하늘은 맑고 날씨는 또 왜 이리 좋은 건지....

그리고, 길거리에는 이상하리 만치 사람들이 없었다.)

'꼭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것 같...은...?!

(그 때, 갑자기 허공이 일그러져 보였다.)

세희 - 음... 어제 너무 무리했나...? 왜 허공이 찌그러져 보이지?

(나는 강의시간에 어떻게 교수님 몰래 잘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일그러져 보이는 곳을 지나가려는 순간 허공에 있는 일그러짐이 점점 영역을 넓히면서 나를 향해 뻗쳐왔다.)

Scene_1-2. 이세계 이왜진?! (프롤로그)

(일그러진 곳을 보자 어지러움이 몰려와서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는데.....)

세희 - 응...? 여기는 어디야...?

(눈을 떠보니... 나는 넓은 평야 한 가운데에 서있었다....

평소 이 세계 장르의 소설이나 애니를 많이 보긴 했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이야...
그것도 나에게...)

'일단 마을로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세희 - 아이고... 다리야... 마을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한참을 걸었을까? 저 멀리 오두막이 보이기 시작했고, 나는 무언가를 봤다는 것이 너무
반가워서 오두막을 향해 전력질주를 했다.)

세희 - 허억.....헉... 아이...고.... 숨차.....

(보통 이 세계 소설이나 애니를 보면 이 세계로 이동하면서 주인공한테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게 흔한 클리셰 인데.... 나는 그런 거 없나 보다... 어릴 때 검도도 배웠는데... 다 부질없네...)

'다른 건 몰라도 체력이나 좀 올려주면 어디가 덧나나...'

(너무하단 생각을 하며 오두막으로 다가갔다.

오두막은 멀리서는 몰랐는데, 가까이 가보니 귀신이 나오게 생겼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건가?'

(혹시 몰라서 노크를 해봤지만 오두막 내부에서 반응이 없다.)

세희 - (끼익)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계시나요~~ 윽...먼지... 콜록...

(나는 오두막이 방치된 지 오래된 곳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청소를 했다.

그래도 청소하고 나니 아기자기한 느낌이 봐줄 만하단 생각을 하며 오두막 내부를 둘러보는데,
창고로 보이는 곳에 인테리어 소품들이 눈에 띄었다.

전공과목을 살려가며 꾸미던 그 때....)

(벌컥-)

?? - 누... 누구세요?

세희 - 네? 그쪽은 누구세요...?

?? - 저는 이 집 주인인데요...?

세희 - 이 집 주인이 있어요? 귀신 나오게 생겼던데....

?? - 귀...신....ㅠㅠ

(내 말을 들은 남자는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다.)

'쩝.... 괜히 미안하네...'

세희 - 멋대로 들어와서 죄송해요. 아무도 안 살고 있는 집인 줄 알았거든요...

세희 - 제 이름은 '세희'라고 해요. 그쪽은.....

리오 - 아... 제 이름은 '리오'예요. 그리고보니 집안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귀여워진 느낌이...

세희 - 제 전공분야에요.

리오 - 혁.... 혹시 일 해 볼 생각 있어요?

'안 그래도 일을 구해야 하는데 다행이다.'

세희 - 좋아요!

리오 - 네...? 이렇게 빨리?

세희 - 안 그래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리오 -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요.

세희 - 근데.... 이 근처에 숙소 같은 곳 있나요?

리오 - 그거라면 저희 집 2층을 쓰세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청소를 하셔야 하지만...

'오늘은 청소하는 날인가보다...'

세희 - 아하하.... 감사합니다.

(다음 날)

(나는 전 날 하루 종일 청소만 하느라 비명을 지르는 몸을 일으켰다.)

세희 - 흐아아암~ 아구... 삭신이야.... 어제하루 종일 청소 만 했더니 힘이드네...

리오 - (노크소리) '세희'님일어나셨나요~?

세희 - 아!! 네!! 일어났어요~

리오 - 아침식사 하세요~ 아침 먹고 나서 마을 안내 겸 거래처 소개도 해드릴게요.

Scene_2-1. 설레는 이세계에서의 시작 (튜토리얼)

[마을 외곽 -> 마을]

(아침 식사 후 '리오'와 나는 마을로 향했다. '리오'의 오두막에서 마을 외곽까지 오는 길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뒷마당에 '마을로 가는 게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마을 외곽에서 바라 본 마을 전경은 마음이 따뜻해져 올 정도로 평화로운 느낌이 가득하였고, 건물들은 공주님이 나오는 동화속 세상의 그것처럼 아름다웠다.)



리오 - 이 앞에 보이는 곳이 마을 이에요. 집 이랑 마을 외곽에 있는 게이트가 연결이 되어있어서 이동하거나 무거운 짐을 옮기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원래 세계에 있는 우리 집에도 학교까지 게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네...'

Scene_2-2. 인테리어 소품가게 'RIRA' (튜토리얼)

(마을 중앙 쪽으로 들어갔을 때 '인형의 집'처럼 생기고 깔끔한 느낌의 건물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고, 그 가게의 간판에는 'RIRA' 라고 쓰여 있었다.)



리오 - 여기는 인테리어 소품 가게 '리라'예요.

리오 - 1 층은 '노라' 아주머니께서 커튼과 침구류 등을 팔고계시고, 2 층은 '리리스' 누나가 조명과 인테리어를 할 때 필요한 장식품 등을 팔고 있어요.



?? - 어머~ 리오~ 옆에 예쁜 아가씨는 여자친구?

(20 대로 보이는 단발머리에 앞치마를 하고 있는 귀여운 외모의 여성이 '리오'에게 말을 걸어왔다.)

리오 - 앗.... '리리스' 누나!! 여기계신분은 인테리어 시공 일을 도와주실 전문가 '세희'님 이에요.

리오 - 앞으로 물건을 자주 사러 올 거예요.

리리스 - 그래? 난 또 드디어 리오가 모태솔로 탈출하나 했지~



리오 - 아픈 곳을....ㅠㅠ... 근데 '노라' 아주머니는 안에 계시나요?

노라 - 가게 앞이 시끌벅적해서 나와봤더니 내 얘기 중이니~?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소란스러웠는지 건물에서 40 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드러운 인상이 매력적인 통통한 체격의 여성이 나왔다.)

리오 - '노라' 아주머니 안녕하셨어요?

노라 - 옆에 예쁜 아가....

리오 - 여기계신분은 인테리어 시공일을 도와주실 전문가예요!!!

노라 - 어머, 깜짝이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니?

리오 - 아아- 죄송해요.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은 우리 '엘리노' 마을의 인테리어 시공일을 도와주실 전문가님 이셔요.

세희 - 안녕하세요~ '세희'라고 합니다.

노라 - 어머~ 인테리어 일을 하신다면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되겠네요~ 잘 부탁해요~

리리스 - 나도 잘 부탁해요~

세희 -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오 - 저희는 이제 '던스' 아저씨 댁에 가 볼 게요. 다음에 뵐요~

Scene_2-3. 인테리어 자체 가게 'MATERIACS' (튜토리얼)

('RIRA'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꽃나무 사이에 둘러싸인 포근하고 다정한 느낌의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다.)



리오 - 저 건물이 '던스' 아저씨께서 운영하시는 '마테리악스'예요.

리오 - 아저씨는 가게 안에 계신가 보네요. 들어가보죠.



(40 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벽지를 재단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던스 - 어서 오세요~ 어떤 물건을 찾...응...?? 리오였구나?

리오 - '던스'아저씨 안녕하세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게 될 것 같아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던스 - 자주오면 나야 일할때 심심하지 않고 좋지~ 근데, 옆에 아가씨는 누구...?

리오 - 아, 이분은 우리마을에서 인테리어 시공 일을 도와주실 전문가 '세희'님 이에요.

세희 -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던스 - 나도 잘 부탁해요.

리오 - 여기서는 벽지와 바닥재, 페인트와 가구를 만들때에 필요한 나무판을 구입할 수 있어요.

던스 - 우리 가게 물건의 품질은 내 목숨을 걸고 보장합니다.

리오 - 아저씨, 저희는 다음번에 다시 올게요.

던스 - 그래~ 조심히 가거라~

Scene_2-4. 전투용품 가게 'Lu' (튜토리얼)

리오 -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들리도록 할게요.

(‘리오’는 그렇게 말하고는 ‘게이트’가 있는 마을 외곽 근처까지 걸어갔다.)



리오 - 여기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이에요.

리오 - 아이던 할아버지~ 계시나요?

아이던 - 오오~ ‘리오’냐? 나는 천막 아래에 있단다!



아이던 - 이 시간에는 웬일이냐~ 이 밤중에 몬스터 사냥이라도 가려고 그러는게냐?

리오 - 그런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인테리어 시공 일을 도와주실 전문가분을 모셔왔어요.

아이던 - 오~ 드디어 '리오'네 집이 말끔하게 변신을 하게 되는 날이 온게냐?

리오 - 할아버지~ 그래도 그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ㅠㅠ

세희 - (속삭이는 목소리로)귀신이 나올것같긴 했지.....

아이던 - 아하하하!!! 아가씨가 정답을 말해주는구만~!!

리오 - '세희'님마저....ㅠㅠ(훌쩍)

리오 - 아차차... 잊어버릴 뻔 했네요. '아이던' 할아버지께는 몬스터를 잡으러 가기 전에 꼭 들려서 정비를 하고 가시는게 도움이 되실거예요.

아이던 - 자주 놀러와요~ 내 물약 하나씩 더 얹어줄테니 꺄꺅

Scene_3-1. 두근두근 첫 의뢰

('리오'와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넬라'라는 30 대 초반의 여성을 만났다.

'넬라'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이번에 따로 나와 독립을 해서 혼자 살게 되었다고 한다.

'넬라'씨는 리오에게 가구주문을 하다가 인테리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의뢰를 신청했다.)

리오 - '세희'님 첫 의뢰네요. '넬라'씨가 새로 마련한 보금자리에 내일 같이 방문해서 '넬라'씨가 원하는 스타일과 소품 등을 듣고 주어진 기한 내에 완공을 하시면 됩니다.

세희 - 알겠어요. / 어려워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알겠어요.	어려워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황에 따른 리오의 답변	- 그럼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봐요~	'넬라'씨가 원하는 취향의 색상과 무늬를 토대로 한 벽지와 바닥재 와 '넬라'씨가 원하는 종류나 유형의 소품을 구하거나, 가구를 만들어 '넬라'씨의 공간을 '넬라'씨가 제시하는 기한 내에 꾸며주시면 됩니다.

Scene_3-2. 까탈스러운 첫 손님

(아침을 먹고 '리오'와 나는 '넬라'씨의 원룸으로 찾아갔다.)



(예시 이미지)



넬라 - 어서오세요.

('넬라'씨의 원룸은 생각보다 더 아담했는데, 작아도 구색은 잘 갖추고 있었다.)

리오 - '넬라'씨 안녕하세요~ 혹시 원하는 인테리어 스타일이 있으실까요?

넬라 - 저는 베이지, 브라운 계열의 색상을 좋아해요. 스타일은 깔끔하고 단정하게
부탁드릴게요.

넬라 - 아!! 가장 중요한게 있어요. '커튼은 꼭 하얀색'으로 부탁드려요.

리오 - 네~ 알겠습니다. 혹시 기한은 언제까지 원하실까요?

넬라 - '3 일 이내'로 해주세요.

'3 일??? 와.... 성격 엄청 급하시다.. 완공까지 아슬아슬하겠네..'

리오 - 그럼 3 일 후에 뵙겠습니다.

Scene_4-1.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는?

('넬라'씨의 원룸에서 나와 필요한 물품을 정리하기 위해 '리오'와 이야기를 나누며 걷던 중 가구제작에 필요한 물품을 구하려면 몬스터를 사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리오 - '세희'님, 제가 '몬스터를 잡기 전에 할 일'에 대해 말씀드린것 생각 나세요?

세희 - '아이던' 할아버지께 들러서 전투준비하기...?

리오 - 맞아요~!! 그럼 전투준비를 하고 올까요?

('리오'와 나는 '아이던' 할아버지께 가서 전투에 필요한 물약을 사면서 '아이던' 할아버지께 목검 한자루를 선물받았다.)

리오 - 그럼 몬스터를 잡으러 가볼까요?

Scene_4-2-(1). 이렇게 귀여운데 몬스터라고?

('리오'는 전투능력이 약해서 지금 가는 필드 까지만 같이 가기로 했다.)

리오 - 필드 에서는 절대 방심해서는 안되요. 특히 몬스터 외모에 속지 마시고요.

'몬스터면 징그럽게 생긴거 아닌가?'

세희 - 속을 일이 없을거 같은데요?

(나는 몬스터에게 속을 일은 없을것이라며 필드를 걷고 있는데 부스럭 하는 소리와 함께 덤불 사이에서 눈은 루비처럼 반짝이는 빨간색이고, 털은 눈처럼 새하얀 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뺏?"

'귀여워....♥'

리오 - 세희님!! 조심하세요 '흰눈툭끼'에요!! 생긴건 아주 귀엽게 생겼지만 치고 빠지는데 선수인 몬스터에요!!

'흰눈툭끼...??? 이름 짓기 귀찮았나!!! 이름이 왜그런건데!!! 잠깐만... 재가 몬스터라고?!"

세희 - 몬스터가 왜 쓸데없이 귀여운건데!!!

리오 - '흰눈툭끼'는 개체 한 마리 한 마리는 약하지만 잡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른 개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빠르게 잡지 않으면 위험해져요.

(‘리오’의 조언에 따라 나는 내 눈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흰눈툭끼’를 목검으로 내리쳤고, ‘빼익’하는 작은 비명과 함께 ‘흰눈툭끼’는 나의 일격에 육체가 풍화되면서 보드라운 털을 남겼다.)

리오 - 와.... 몬스터를 한방에 잡으시다니..‘세희’님 혹시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니라 용병이셨나요?

세희 - ‘리오’가 좀 전에 ‘흰눈툭끼’ 약하다고 말했잖아요. 아니에요?

리오 - 약한 개체가 맞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한방에 잡힐 녀석은 아닌데....

세희 - 운이 좋았던 거겠죠.

Scene_4-2-(2). 귀여운 몬스터 다음 더 귀여운 몬스터

(‘흰눈툭끼’를 잡고 ‘리오’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잔디가 소란스럽게 흔들리는게 점점 다가가고 있었다.)

리오 - 이런... ‘시드랩터’가 다가오고 있어요. ‘시드랩터’도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흰눈툭끼’보다 움직임이 재빠르고 호전적인 성격이에요.



“꺄륵?”

(‘시드랩터’는 머리에 긴 대롱처럼 생긴 더듬이 한개와 그 끝에 씨앗처럼 생긴 작은 혹이 있는 분홍색의 도마뱀 이었다.)

‘여기 있는 몬스터들은 왜 하나같이 전부 귀여워서 죄책감이 들게 만드는건데.....ㅠㅠ’

(나는 이번에도 리오의 조언을 생각하며 검을 휘둘렀다. ‘흰눈툭끼’보다 빠르다고 하더니 확실히

몸놀림이 재빨라서 나는 몇 번의 혀손질을 했고 '시드랩터'의 공격에 내 팔과 다리에는 작은 생체기가 났다.)

리오 - 세희님 '시드랩터의 약점은 '더듬이에 달린 씨앗모양 혹'이에요~!!!

'그런건 처음부터 좀 알려달라고....'

(나는 속으로 투덜대며 '시드랩터'의 씨앗을 닮은 혹을 노리며 공격하였고, '시드랩터'는 '꺅우-' 하는 소리와 함께 육체가 풍화되면서 분홍색의 가죽을 남겼다.)

리오 - 세희님, 고생하셨어요. 이제 돌아가서 가구를 만들죠~

Scene_5. 가구 만들기, 참 쉽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리오'와 나는 공방으로 돌아와 수집해온 몬스터 부산물을 가지고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리오 - 세희님~ 가구 조합도는 여기 책에 나와있어요. 여기 나와있는 재료 조합만 따라하시면 만드시는데 어려움은 없을거에요.

('리오'가 건낸 책에는 오늘 가져온 '흰눈툭끼의 털'과 '시드랩터의 가죽'으로 만드는 가구목록과 다른 몬스터의 부산물이 필요해 보이는 여러가지 가구 목록들이 나와있었다.)

세희 - 여기에 있는 재료 조합법으로 만들면 되는거죠?

리오 - 네, '넬라'씨의 원룸에 필요한 가구는 [2 인용 원목 테이블 1 개, 원목 식탁의자 2 개, 원목 장식장 1 개, '흰눈툭끼의 털'로 만든 원목 침대 1 개, 원목 협탁 1 개, 원목 옷장 1 개, 원목 서랍장 1 개, '시드랩터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소파' 1 개]에요.

(나는 '리오'가 알려준 가구 목록을 보면서 조합책에 나와있는 재료들을 조합하여 가구를 완성시켰다.)

리오 - 와..... 정말 완벽해요... 이곳 이름을 '리오의 가구공방'이 아닌 '세희의 가구공방'으로 바꿔야 하나 싶을 정도로 잘하시네요...ㅠㅠ

(그 말에 나는 취미생활로 문화센터에서 '원목가구 만들기 강좌'를 듣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오 - 오늘은 이만 늦었으니 '원목 가구셋트'와 인테리어에 필요한 다른 물품들은 내일 원룸으로 옮기기로 해요~ 수고하셨어요 세희님.

Scene_6-1. 손님의 취향을 맞춰서

(‘리오’와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전 날 만든 ‘원목 가구셋트’를 짐수레에 챙겨서 게이트를 타고 원룸까지 옮겼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게이트는 사기야... 진짜..현대인들한테 너무 간절한 이동 수단이잖아...’

리오 - 세희님, 이제 필요한 물품은 모두 준비되었으니 인테리어 시공을 시작해 볼까요?

세희 - 네.

(‘리오’와 나는 ‘넬라’씨의 요구사항에 따라 ‘베이지, 브라운 계열’의 벽지와 바닥재로 집안을 꾸미고, ‘노라’아주머니의 가게에서 구매한 ‘흰색 커튼’을 달았다. 가구 배치는 ‘현대 한국의 원룸 평균 가구 배치도’와 비슷하게 생활하기 편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 꾸며보았다.)

세희 - 이정도면 ‘넬라’씨가 마음에 들어할까요?

리오 - 세상에..... 어떻게하면 이런 배치도가 나올 수 있는거죠?

리오 - 정말 대단해요. 제가 가서 ‘넬라’씨를 모셔올게요.

Scene_6-2-(1). 까다로운 그녀가 감동했다. (퀘스트 성공 루트)

(‘리오’가 ‘넬라’씨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원룸으로 들어왔다.)

넬라 - 세상에..... 여기가 제 원룸이 맞나요?

리오 - ‘세희’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꾸미셨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넬라 - 솔직히 젊은 사람들이라서 별로 기대 안했는데... 제 기대치를 뛰어넘는 인테리어를 해주셔서 정말 감동했어요....

‘별 기대 안하셨다니... 너무 솔직하시네....’

리오 - 감동이셨다면 주변에 소문 좀 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넬라 - 네, 제 친구들이랑 주변 지인들 한테 자랑 많이 해드릴게요.

넬라 - 유명해지시기 전에 첫 순서로 인테리어 시공을 받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Scene_6-2-(2). 까다로운 그녀는 실망했다.(퀘스트 실패 루트)

[※벽지나 바닥재, 혹은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등의 자재중 한가지라도 빠지거나 다르면 실패]

(‘리오’가 ‘넬라’씨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원룸으로 들어왔다.)

넬라 - ...음..... 제가 원했던 느낌은 이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라 감각이 좋을거라 믿었는데, 이건..... 정말 실망이에요. 이곳에서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넬라’씨가 원하는 스타일로 꾸미면서 ‘000’을(를) 빠트렸나보다. 실망한 ‘넬라’씨는 우리에게 축객령을 내렸고, ‘리오’와 나는 공방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Scene_7-1(1). ‘새로운 고객’ (~~유치를~~) 님을 위하여(선 퀘스트 성공 루트)

(공방으로 돌아온 ‘리오’와 나는 긴대화를 하면서 고객유치를 위한 전단지를 만들어 마을 곳곳에 붙이자는 의견이 나왔고, 초반에는 조악한 결과물 이었지만 머리를 맞대어 생각을 쥐어짜내었고, 우여곡절 끝에 제법 전단지다운 모양새를 갖추었다.)

리오 - 세희님, 전단지는 사본이 만들어지는 대로 붙이려 가기로 해요.

세희 - 그 전까지 손님이 오실까요?

리오 - 그건 저도 지.....

?? - (노크소리) 계십니까~~~!!!!

리오 - 누구세요?

멘튼 - 아, 저는 ‘멘튼’이라고 합니다. ‘넬라’의 소개를 받고 급하게 의뢰를드리려고 왔습니다.

리오 -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Scene_7-1(2). ‘새로운 고객’ (~~유치를~~) 님을 위하여(선 퀘스트 실패 루트)

(공방으로 돌아온 ‘리오’와 나는 긴대화를 하면서 고객유치를 위한 전단지를 만들어 마을 곳곳에 붙이자는 의견이 나왔고, 초반에는 조악한 결과물 이었지만 머리를 맞대어 생각을 쥐어짜내었고, 우여곡절 끝에 제법 전단지다운 모양새를 갖추었다.)

리오 - 세희님, 전단지는 사본이 만들어지는 대로 붙이려 가기로 해요.

세희 - 그 전까지 손님이 오실까요?

리오 -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전단지를 붙이면 손님이 꼭 오실거라 믿어요!!

(인쇄 주문을 넣은 전단지가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리오'와 나는 인쇄물을 받아들고 마을 곳곳에 전단지를 붙여 놓고 배포하였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던 즈음까지 전단지를 배포하고 공방으로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들기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 - - (노크소리) 계십니까~~~!!!!

리오 - 누구세요?

멘튼 - 아, 저는 '멘튼'이라고 합니다. 전단지를 보고 급하게 의뢰를드리려고 왔습니다.

리오 -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Scene_7-2. 그남자의 사정



(문을 열고 들어온 '멘튼'씨의 첫인상은 강렬했다.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마치 '아이던' 할아버지의 젊은시절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듯 한 건장한 체격의 20 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마초맨...?)

멘튼 -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실례인줄 알지만 하루라도 빨리 의뢰를 드려야 제시간에 맞출

수 있을듯해서 찾아왔습니다.

(마초.... 아니아니... '멘튼'씨는 결혼을 앞둔 자신의 예비신부를 위해 마을 시가지에 매입한 신혼집을 꾸며 결혼 선물로 준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생긴거랑은 다르게 되게 로맨틱한 사람이였네...'

리오 - 너무 멋진 계획이에요~ 혹시 '멘튼'씨가 따로 원하시는 스타일이나 색상이 있을까요?

멘튼 - 아무래도 신혼집이니까 아기자기하고 달콤한 느낌으로 부탁드릴게요. 음~ 색상은 파스텔 계열의 분홍색과 파란색이 좋을거 같아요. 우리 '꿀벌'이는 파란색을 좋아하고 저는 분홍색을 좋아하거든요. 하핫-. 그리고, 현관 입구에 'RIRA'의 2층에 주문해둔 '반지함이 포함 된 장미꽃다발'을 놓아주세요.

리오 -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준비 해드리면 될까요?

멘튼 - 일주일 후에 집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프러포즈를 할 생각이라서요. 6 일 이내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그래, 이정도 기한은 되야 제대로 실력발휘를 해보지.'

세희 - 그럼요~^^ 달콤한 신혼생활이 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꾸며드리겠습니다.

멘튼 - 그럼 신혼집 인테리어는 두분만 믿고, 저는 프러포즈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멘튼'씨가 돌아가고 난 후 '리오'와 나는 '멘튼'씨의 의뢰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뒤 다음날의 일정을 정하고 휴식을 취했다.)

Scene_8-1. '달콤한 향기가 나는 벽지'?!

(날이 밝아오자마자 '리오'와 나는 마을로 가서 인테리어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매해 '멘튼'씨의 신혼집으로 옮겨놓기로 하였다.)

세희 - 이제 '던스'아저씨 가게에 들러서 자재를 구매하면 마지막 이네요~!!

리오 - 맞아요. '세희'님 가구 만들려 가기 전에 벽지랑 바닥재까지 마무리 해놓고 가기로 해요.

('리오'와 나는 '던스'아저씨 가게인 '마테리악'으로 향했다.)

리오 - '던스'아저씨~ 계세요~?

던스 - 오오~ '리오', '세희'양 어서와요.

던스 - 그래, 이번 손님은 어떤 느낌을 원하시려나?

('리오'와 나는 '던스'아저씨께 '멘튼'씨가 신혼집을 프러포즈 선물로 하려 한다는 말을 전해드렸고, 아저씨는 머릿속으로 어떤 제품이 좋을지 고민하시는 표정이셨다.)

던스 - 흐음~ 그래그래, 그게 좋겠어.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던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을 이어가셨다.)

던스 - 오늘 마침 '달콤한 향기가 나는 벽지'라는 제품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번 손님의 의뢰에 아주 잘 어울릴만한 느낌이 드는구나~

리오&세희 - '달콤한 향기가 나는 벽지'요?

던스 - 허허, 나도 오늘 아침에 벽지 이름을 듣고 많이 당황스러웠지.

던스 -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쓰게되는구나.

리오 - 혹시 벽지 향을 맡아봐도 될까요?

던스 - 당연히 되고 말고, 제품을 구매 하려면 꼼꼼하게 확인하는게 중요하지~!!

('던스'아저씨는 '달콤한 향기가 나는 벽지'를 꺼내오셨다.)

리오 - 와~ 꺼내자마자 기분 좋은 달콤한 향기가 확 퍼지는데요?

('리오'의 말대로 '던스'아저씨가 벽지를 꺼내자마자 은은하게 퍼지는 달콤함이 느껴졌다.)

'와.... 이런 향이 있을 수 있구나..... 달콤하다는 느낌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상상이 가네.'

던스 - 그렇지? 나도 독한 향이 아니라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라서 주문 할 마음을 먹었단다.

세희 - 웬지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그런 향기네요.

던스 - 마법으로 특수 가공처리를 해서 집안에 안좋은 냄새를 흡수하고 달콤한 향기로 변환시켜서 향기가 오래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Scene_8-2. 향기에 취해...

(‘리오’와 나는 ‘던스’아저씨 가게에서 구매할 자재들과 ‘달콤한 향기가 나는 벽지’를 파스텔톤의 분홍색과 파란색으로 구매하고, ‘멘튼’씨의 신혼집으로 가서 벽지와 바닥재 작업을 진행시켰다. 벽지를 바르다보면 아무리 좋은 풀은 쓴다고 해도 특유의 냄새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이 벽지는 머리도 아프지 않고,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공방에 있는 내 방에도 이 벽지로 바꿀까?’

(그런 생각을 하며, 창문 밖을 내다보니 ‘리리스’언니의 가게에서 구매한 ‘반지함이 포함 된 장미꽃다발’처럼 붉은 노을이 지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달콤한 향기를 맡으며, 저녁놀을 보고있자니 괜스레 원래 세계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그리운 표정이 지어졌다.)

리오 - ‘세희’님. ‘세희’님이 저희 공방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니... 아니에요.

리오 - ‘세희’님, 이제 마무리짓고 공방으로 돌아가죠.

(나는 ‘리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건지 궁금했지만, 웬지 모르게 서글퍼보이는 ‘리오’의 표정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었다.)

Scene_8-3. ‘리오’의 과거(회상씬) - ‘리오’시점

(